

더 자스민 일보(一步)

*일보(一步): 한 걸음 나아감

- “밑줄 클릭”만으로 본문 열람 가능합니다 -

클러버 大모집!



지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“땅이나 물에 사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” 이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

엄,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엄청난 열성으로 운동 중인 열사는 아니옵고. 그저 지극히 나 하나의 안녕을 위해 시작한 비건이 실로 위대한 결심이었다는 걸 알수록 알게 됩니다. 소 방구에 포함된 메탄과 분노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, (축산을 위해) 열대우림을 파괴해 탄소 흡수처를 없애는 행위가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. ‘내가 더 많이 소비한 죄’라는 이번 호 주제는 여기서 길어낸 것입니다. 아무렴, 비건이 되어 지구 불 낮이 생겼습니다.

1. 자기 문제로부터 책 쓰는 방법
2. 모두가 글을 ‘잘’ 쓸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
3. 단문으로 쓰라구요?
4. 글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
5. 부모싸움에 놓인 소녀를 위하여
6. 꺼져주라 제발ㅍㅍㅍ

이번에도 일을 벌렸다. 맨 정신으로 도저히 쓰기 힘든 우리를 위해 글클럽을 차렸다. 이름하야 글클럽 “생맥”. 사전 예약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DM 바란다. @writist_son



손은경 글방 | 10월 모임 알림

- “작가처럼”에 함께 할 글에 진심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
- 시작 : 2022.10.04(화) 밤 9시부터~ (자세한 사항은 [여기로](#))

